
우주의 집

작성 김은진(시흥매화고등학교)
김황곤(영생고등학교)
안현경(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최연정(송호고등학교)

※ 이 지도안은 사계절출판사 홈페이지(www.sakyejul.net)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지도안(중고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계절1318문고 124
문이소, 고희관, 남유하, 최영희, 윤여경 글



■ 주 제 어 #동물권 #장애 #노인문제 #탈북민 #일본군성노예

■ 분 류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 활 용 토론

도서 소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청소년, 그들의 생각과 상상력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할까요? 우리는 입시, 친구, 가정, 사회, 학교생활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상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상상이 때로는 허무맹랑하고,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에 금방 낙담을 합니다.

이 소설집은 이러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로 개인, 사회 문제들을 짚어 보고 있습니다. 개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동물실험’ 문제를 다룬 「완벽한 꼬랑내」, 우주에서 태어나 우주정거장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소년인 ‘서우주’와 청각 장애를 가진 ‘에테르’라는 소년이 만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우주의 집」, 평생 늙지 않고 열일곱 살로 살아갈 수 있는 ‘텔로미어 칩’을 몸에 심으려 했으나, 부작용으로 갈등하는 에밀의 이야기를 다룬 「실험도시 17」, 일본군 성노예 희생자들의 삶을 이해하는 「뭍은것」, 탈북 청소년의 삶을 다룬 「문이 열리면」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상상력으로 다양한 문제를 접근하도록 합니다.

상상력은 매우 긍정적이며,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들은 개인적 상상력에서 사회적 상상력으로 인식의 범위를 넓혀 줍니다. ‘나’가 아닌 ‘공동체’를 바라보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에 대한 고민과 방향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완벽한 꼬랑내」, 「우주의 집」, 「실험도시 17」, 「뭍은것」, 「문이 열리면」을 읽고, 여러분들이 배운 과학, 윤리, 사회, 역사 과목들과 연관지어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학습 목표

1. 글의 내용이 어떤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나요? 소설을 읽으며 파악해 봅니다.
2. 작품 속에서 발견한 사회 문제를 주인공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 가고 있나요? 그 방법에 동의 하나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동의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3. 작품 속 사회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여러 가치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토론해 봅시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총 10차시
독서 전	생각 열기	1차시
독서	「완벽한 꼬랑내」를 읽고 (1)	2차시
	「완벽한 꼬랑내」를 읽고 (2)	3차시
	「우주의 집」을 읽고	4~5차시
	「뭉은 것」: 뭉은 것이 더 선명하다	6차시
	「문이 열리면」: 두려움을 버리고 당당하게 맞서자	7차시
	「실험도시 17」을 읽고	8차시
독서 후	〈글쓰기 활동〉 논증적 글쓰기	9차시
	피드백 활동 및 삶의 내면화 활동	10차시



1. 책 표지를 자세히 봅시다.

1) 책 표지에서 발견한 이미지를 나열해 봅시다.

2) 표지 이미지들을 종합하여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지 예측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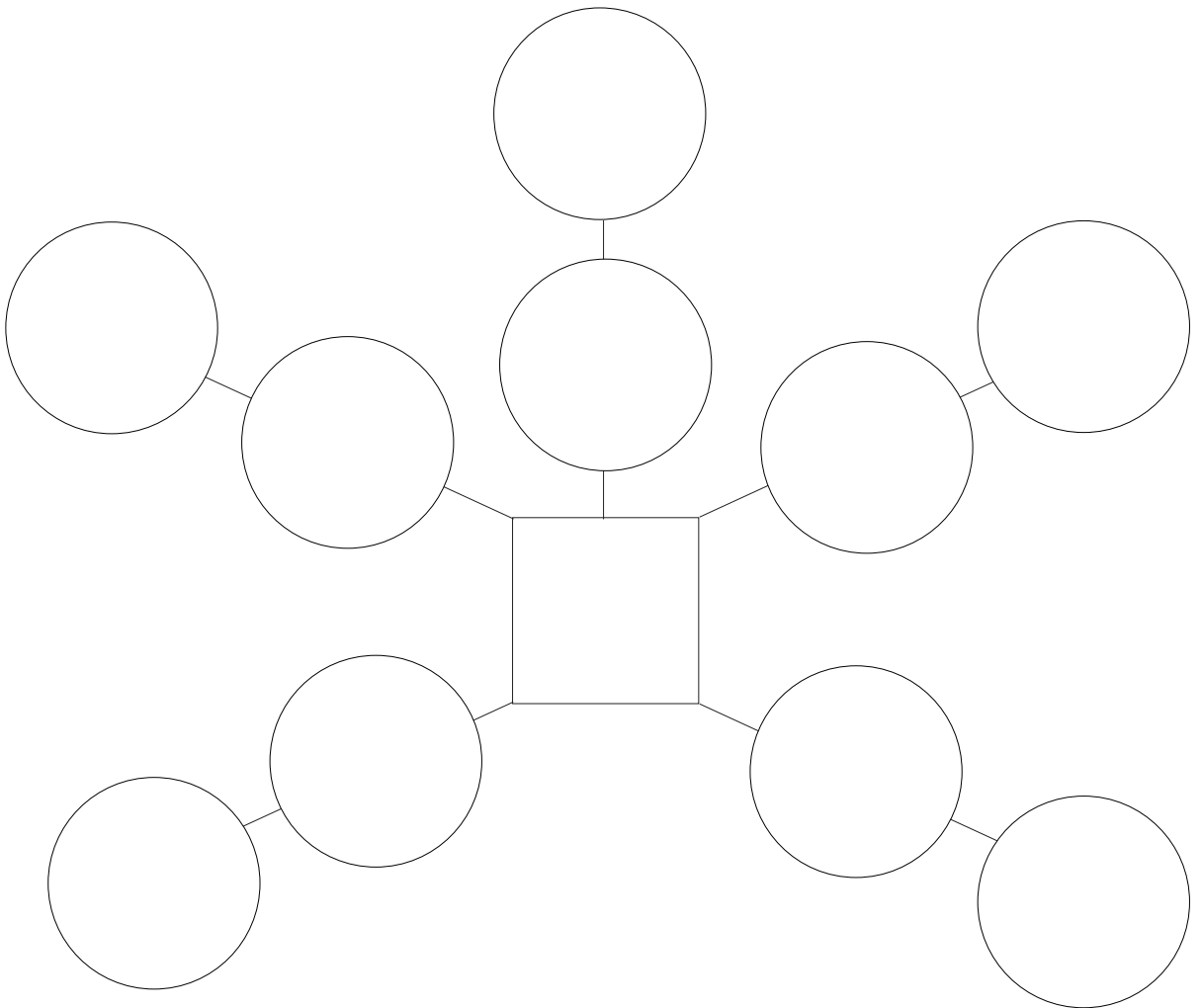
2. 목차를 살펴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다섯 개의 단편 제목을 보고 가장 기대되는 하나를 골라 어떤 내용일 것 같은지 적어 봅시다.

선생님께 ‘생각 열기’ 활동은 책을 읽기 전 책 표지와 차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활동입니다. 실제 책의 내용과는 다르더라도 책 표지에 사용된 이미지(개, 염색체, 문 등)를 최대한 자세히 살펴보고 상상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목차에 제시된 다섯 단편의 제목 중 각자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기대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제목과 표지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설명하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1. 「완벽한 꼬랑내」의 내용 중 인상 깊었던 것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려 봅시다.

1) 「완벽한 꼬랑내」의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단어 하나 (혹은 두 개)로 제시해 보세요.

2) 앞에서 제시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작성해 봅시다.



2. 다음 기사를 읽은 후, 복제견 ‘메이’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내가 바라는 ‘메이’의 삶을 적어 봅시다.

1) 다음 기사를 읽어 봅시다.

동물복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 (○○대 수의대 교수)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 ○○대학교 수의대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그가 복제한 비글 품종의 ‘메이’를 불법으로 동물실험에 이용해 폐사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메이는 ○○○ 교수가 이끄는 ○○대 수의대 연구팀에서 2012년 10월 탄생시킨 복제견으로 2013년부터 5년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으로 ○○공항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은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사역견을 동물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메이는 은퇴 후 ○○○ 교수 연구팀의 동물실험실로 이관됐다.

8개월 만에 잠시 농림부에 맡겨진 메이는 아사 직전의 양상한 상태였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 상태와 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메이의 상태가 발각되면 비윤리적 실험을 이유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해 이를 숨기고자 외부기관인 농림부 검역본부로 데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메이의 생식기는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왔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급여한 사료를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다 코피를 쏟아내기도 했다. 메이는 일주일 뒤 ○○대 자체 감사가 끝날 즈음 돌아갔고 지난 2월 27일 결국 폐사했다.



〈‘메이’의 실험 전 모습(좌)과 실험실에 들어간 후의 모습(우)〉

출처: 국민일보

2) 복제견 ‘메이’가 살았으면 하는 삶을 상상하여 기사의 내용을 바라는 대로 바꾸어 써 봅시다.

선생님께 단편 「완벽한 꼬랑내」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인상 깊었던 것을 키워드로 하여 마인드맵에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도해 주세요. 키워드는 학생들이 각자 결정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진지한 생각이 담겨 있으면 어떤 키워드라도 가능합니다. 또한 소설의 모티프가 된 실험 복제견이었던 ‘메이’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를 읽으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생명윤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기사를 읽은 후 기사 내용 바꾸기, 즉 실험 복제견 ‘메이’가 실제와 달리 어떻게 살았으면 좋았을지를 자유롭게 상상하여 적어 봅니다.

3차시

「완벽한 꼬랑내」를 읽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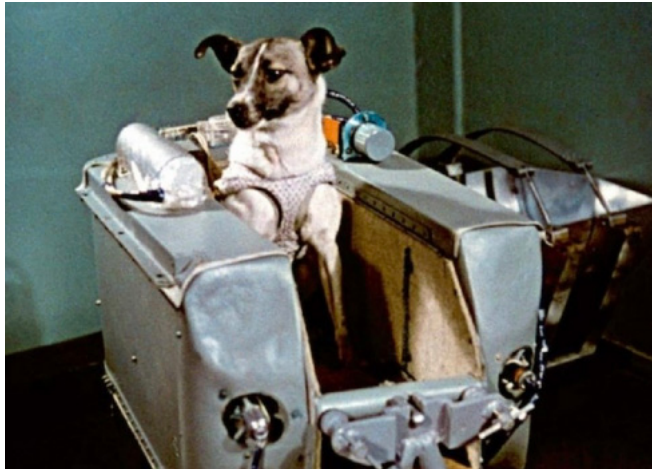
1. 제시된 자료를 읽고 논제 ‘인간의 편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논제에 대한 논증을 구성해 봅시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우주 개발에 신호탄을 올렸다. 지름 58cm, 무게 83.6kg의 작은 공처럼 생긴 스푸트니크 1호가 그 주인공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지름 2m의 원통형에 무게 504kg의 스푸트니크 2호가 발사됐다. 크기도 더 컸지만 크기 이상의 의의가 있었다. 바로 최초의 우주 동물인 라이카란 이름의 개가 탑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이카는 모스크바 시내의 떠돌이 개였다고 한다. 원래 쿠드랴프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부르기 힘들어 라이카로 바뀌었다. 스푸트니크 2호 발사 전 소련은 라이카의 목소리를 녹음해 라디오를 통해 전 국민에게 들려주는 등 한껏 분위기를 띄웠다.

스푸트니크 2호에는 라이카가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산소 발생기,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 온도 조절 장치가 달려 있었고, 물과 음식을 공급하도록 설계돼 있었다. 라이카의 맥박, 호흡, 체온 등을 감지하는 전극이 있어 지상의 관제탑으로 송신하도록 돼 있었다.

라이카는 스푸트니크 2호에 꼬꼬 묶인 채로 실려 우주로 쏘아 올려졌다. 소련은 라이카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1주일 동안 생존하다가 미리 설치한 장치로 약물이 주입돼 고통 없이 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는 2002년 거짓으로 들통 났다. 미국에서 열린 세계우주대회에서 러시아 생물학연구소의 디미트리 말라센코프 박사가 당시 라이카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은 것이다. 그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라이카의 심장박동수가 3배 이상 빨라졌다가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이카는 가속도와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로켓이 발사된 지 몇 시간 만에 공포에 질려 죽었다. 라이카의 이름은 소련의 우주개발 기념비에 새겨져 있고, 우표로도 나왔다. 2007년에는 50주년을 맞아 라이카를 기념하는 동상까지 세워졌다. 비록 소련의 발표는 거짓이었지만, 우주 개발에 기여한 라이카의 공로를 폄하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이카> -사진 본문 가운데에 넣어 주세요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우주 실험 동물-동물 희생 위에 세워진 우주 개척 (『지구 과학 산책』, 김정

1) 논제 '인간의 편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면 안 된다.'에 대한 나의 입장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찬성 VS.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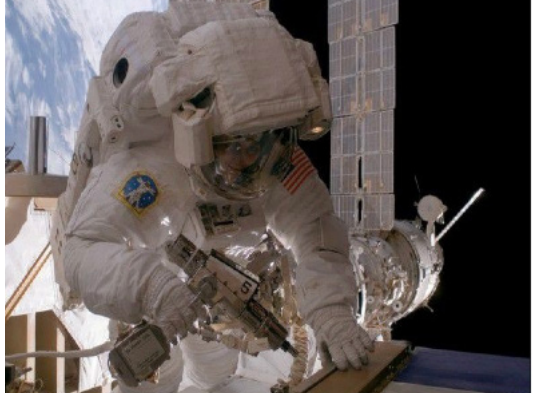
2) 논제에 대한 나의 입장을 논증으로 구성해 봅시다.

논제	인간의 편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면 안 된다.	
나의 입장 (택1)	인간의 편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면 안 된다. 인간의 편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논증	이유1	
	근거1	
	이유2	
	근거2	
	이유3	
	근거3	

선생님께 단편 「완벽한 꼬랑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와 생명 윤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활동입니다. 제시문을 읽고 인간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여 얻은 성과와 비판점을 생각해 보고 동물의 희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지도합니다. 검색을 통해 더 많은 자료를 검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논증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3개씩 마련해 보도록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유와 근거 찾기를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타당하기만 하다면 1개나 2개만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활동1] 생각 열기

1. 다음은 나사(NASA)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골라서 제목을 정해 보고,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의 마음으로 사진을 소개해 봅시다.



내가 고른 사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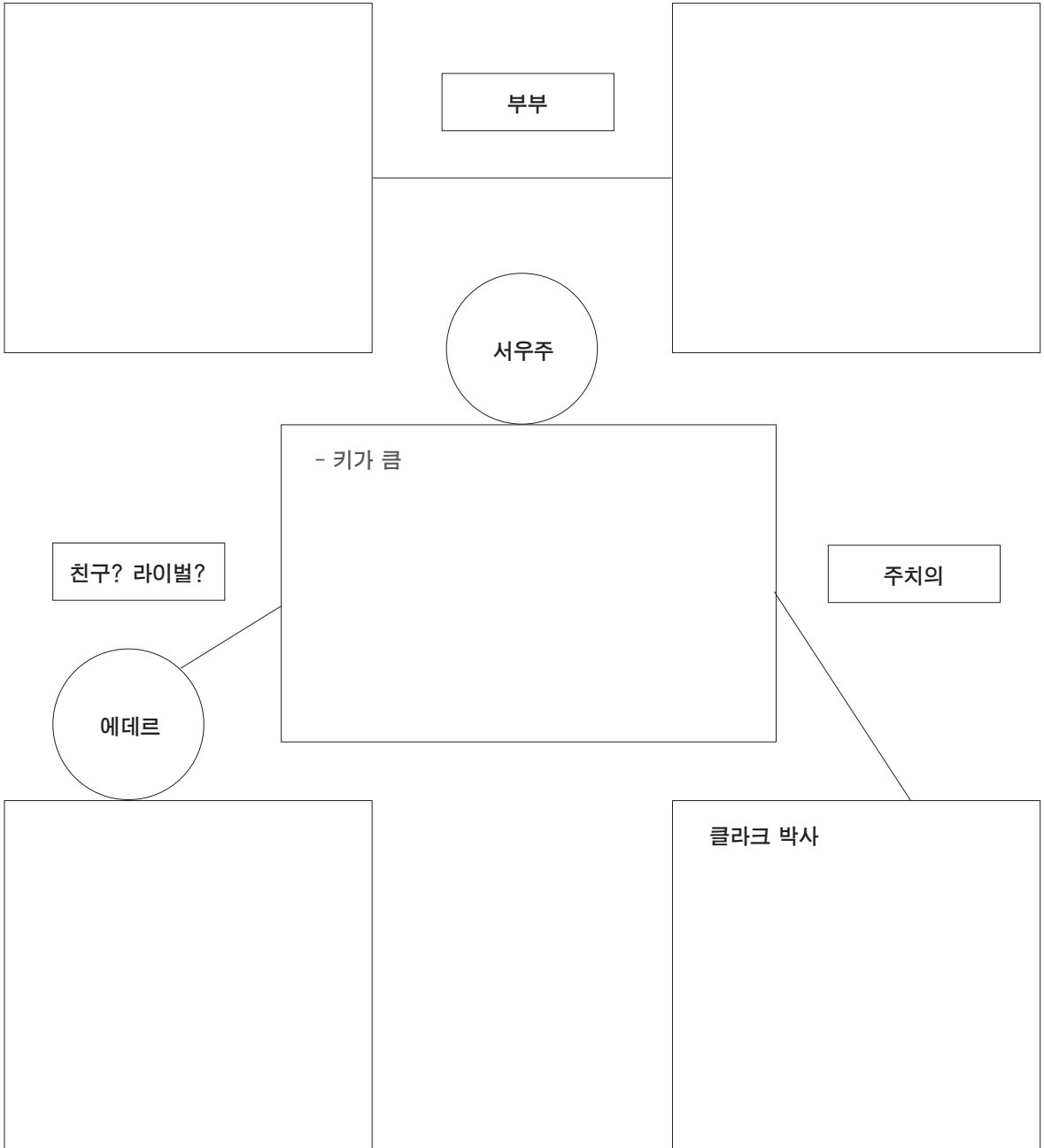
사진을 찍은 이유와 사진 설명

2. 우주는 '지구'에 가고 싶어 합니다. 지구에 친구,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았던 곳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주의 '지구'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 혹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봅시다.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혹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생님께 이 활동은 책을 읽기 전, 읽은 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와 우주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들 모두 우주 공간에 있는 상황이므로 학생들이 우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제목을 정하고 설명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활동은 제목의 의미와 함께 내용을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발표 혹은 글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활동2] 작품 속 내용 생각해 보기

1. 작품 속 인물들의 관계도와 인물의 설명을 글 혹은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선생님께 이 활동은 인물을 분석하며 주된 갈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활동입니다. 요즘 드라마 인물 관계도를 생각하며 학생들이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활동3] 질문칸 차지하기 게임

준비물: 주사위 2개, 질문지(6*6), 연필

게임 규칙:

- 4명이 1개의 조를 만들도록 합니다.
- 조원 1명당 9개~10개의 질문을 각자 만들어 봅니다.
- 질문을 주사위 놀이판 위에 적습니다.
- 자신의 표시를 만들어 봅니다.(별, 하트 등)
- 1명씩 주사위를 2번 굴려, 처음 굴린 것은 세로, 두 번째 굴린 것은 가로.나온 칸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답한 후, 자신의 표시를 그려 넣습니다.
- 1명당 1번 찬스! “내가 답하겠어!”를 외칠 수 있습니다.
- 주어진 시간이 끝난 뒤, 많은 칸을 차지하는 사람이 우승입니다.

연번	만든 질문
1	
2	
3	
4	
5	
6	
7	
8	
9	
10	

질문칸 차지하기 게임

연번	1	2	3	4	5	6
1						
2						
3						
4						
5						
6						

선생님께 학생들이 9-10개의 질문 만들기를 부담스러워하면, 6*6 질문판에 교사가 미리 질문을 적어 둡니다. 그러면 학생당 질문을 만드는 개수가 적어집니다. 또한 * 표시를 해서 그 칸은 '보너스'로 주시면 활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맞게 활용하세요.

두번째 첫번째	1	2	3	4	5	6
1	제목이 「우주의 집」인 이유는?	집의 좋은 점 3가지는?	자신의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우주가 운동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친구가 나의 말을 무시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주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
2	집에만 있으면 좋은 점 3가지?	우주의 엄마 아빠는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가?	중력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게 좋은가?	우주가 처음으로 '우주'를 집처럼 느낀 이유는?
3	나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인가?	소설에서 중력을 느낄 수 없는 층은?	우주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우주의 부모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적은?	자신이 친구와 오해가 있었을 때는 어떤 상황인가?
4	우주의 방 창문에서 보이는 것은?	내가 '집이구나'라고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	우주가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한 이유는?	우주와 나의 공통점 2가지는?	우주가 지구에 못 가는 이유는?	내가 에데르처럼 친구에게 오해를 받았던 적은?
5	우주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 아이의 이름은?	지금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우주가 가장 잘하는 것은?	에데르와 나의 차이점 2가지는?	우주와 에데르의 공통점은?	에데르와 나의 공통점 2가지는?
6	집에만 있을 때 불편한 점 3가지?	우주와 에데르의 차이점은?	나는 처음 만나는 친구와 어떻게 친해지나?	우주는 어디에 있는가?	나와 취미가 같은 친구를 소개해 보면?	우주와 나의 차이점 2가지는?

1. 「뭉은 것」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질문	
1	‘까치울’은 가상의 공간으로 ‘뭉은 것’들이 사는 공간 중 하나이다.	(O , X)
2	‘까치울’ 사람들은 독특한 개성이 있고, 저마다 원한을 갖고 있다.	(O , X)
3	‘뭉은 것’들은 까치울 밖에서도 생활하고 있다.	(O , X)
4	‘뭉은 것’들은 까치울 밖으로 절대로 나갈 수 없다.	(O , X)
5	‘뭉은 것’들은 누군가의 고통이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자아이다.	(O , X)
6	‘까치울’은 실제 여문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상의 공간이다.	(O , X)
7	진짜 여문은 소설의 끝 부분에서 결국 죽게 된다.	(O , X)

2. 여문은 왜 소용돌이에서 나온 벌거벗은 중년 남자와 군복 차림의 일본인을 왜 죽였을까요? 본문을 찾아 기록해 보고 자신의 의견을 작성해 보세요.

본문	나의 생각
<p>까치울의 너는 나와는 달리 능수능란하게 칼을 다룰 줄 알아. 다날에 그놈들의 숨통을 끊어 놓을 만큼 노련한 살수(殺手)지. 가끔씩 죽이고 싶은 놈들의 허물을 너한테 보낼게. 여기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대신해 줘. 너라면 놈들을 똑딱 해치우고도 남을 거야. 그 칼로 너 자신과 까치울 사람들을 지키며, 나 대신 거기서 살아 줘. 또 하나의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지옥에서도 시간이 흘러.</p> <p>(132쪽)</p>	

3. '여문'은 우리 민족에서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본문에서 근거를 찾고 나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본문	나의 생각
<p>거구의 일본 군인이 소용돌이에서 튀어나왔던 날, 여문이 소용돌이 너머로 본 것은 누군가의 희고 야윈 다리였다. 여문은 그게 누구의 다리인지 알고 있었다. 젖은 흙인지 핏물인지 모를 얼룩이 튼 종아리와 발목 바깥쪽에 있던 검은 반점……. 여문의 발목에도 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다. 소용돌이 너머에 있던 아이는 뭉지 않은 여문이었다. 아마도 일본 군에게 끌려간 열다섯 살 여자아이일 것이다. 까치 울은 그 아이가 만들어 낸 세계였다. (131쪽)</p>	

4.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여문이 현재까지 살아 있다면 그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휴전에 들어가고, 도시의 철길을 증기 기관차 대신 디젤 기차가 달리게 되었지만 여문은 열다섯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언제부턴가 소용돌이는 더 사람을 뺏어내지 않았다. 하지만 여문은 진짜 여문이 살아 있다는 걸 알았다. 어느 해에는 역새발에 사과나무가 자랐고, 또 어느 해에는 몹시 부산스러운 강아지들이 깹깹거리며 소용돌이에서 떨어져 내렸으니까.

2) 현재 살아가고 있는 ‘여문’이 아래의 뉴스 기사를 접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 봅시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적 판결이 오늘(8일)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 배춘희 할머니를 포함한 12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에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입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1인당 1억 원' 요구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소송비용도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피고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여러 번 있었지만, 판결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과 미국 법원에서도 계속 패소했었죠.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5. 작가는 ‘여문’의 이름을 ‘남을 여(餘), 문을 문(問)’ 즉, ‘남은 물음’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 중 ‘묻은 것’처럼 희미하게만 기억 될 뿐, 잊혀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남은 물음’에 대해 고민해 봅시다.

선생님께 「묻은 것」의 작가는 일본군 성노예 희생자들의 삶을 한번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필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TV와 언론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또한 영화와 다큐로도 접했습니다. 많이 보고 들었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잊지 않고 가슴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 같습니다. 소설은 여문의 삶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문의 행동을 통해 글을 통해 그녀의 삶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왜 사람들을 죽여야 했는지, ‘소용돌이 너머에 있는 묻지 않은 여문’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찾아가며 많은 ‘여문’들의 삶을 알아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여문’들의 삶도 이야기를 나누고 역사를 잊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두가 살아 온 삶을 정리해 봅시다.

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의 연두: 탈북 후 중국에서 숨어 지냄, 공안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 자주 숨음. - 인천공항에서의 연두: 탈북하여 남한으로 들어옴. 인천공항 화장실에 있음. - 보육원에서의 연두: 함께 탈북한 연두의 엄마가 재혼 후 연두를 보육원에 맡긴 후 연락이 끊김. 북한 말을 쓴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음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화장실에서의 연두: 보육원에서의 친한 친구인 태민이가 보육원을 나가야 할 상황에 이르자, 충격을 받고 시간 발작을 하며 시간 여행을 함.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에서의 연두: 증조할머니가 됨. 병원에서 손주와 며느리, 남편을 만남.

2. 아래의 글을 읽고,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연두의 삶과 관련하여 적어 봅시다.

“왜냐하면 태민이는 항상 연두를 걱정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간 지 십 분이 지났는데 연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들이 나타났거든요.”

태민이는 '그것들'에 대해 말할 때 긴장했다. 그때 '그것들'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랬다. 무시무시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다.

“모두들 그것들이 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것들은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더니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142쪽)

〈연두의 삶과 관련하여 적기〉

‘그것들’은 자기가 현 시간에 머물고 싶지 않을 때 생기는 것으로 다른 시간대로 여행하는 신드롬의 현상이다.

연두는 탈북 후 태민이를 만날 때까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 공간에 걸릴 두려움, 남한에 온 후 어머니와의 이별 등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다. 보육원에서 태민이를 만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태민이와 이별 하는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 현실을 떠나 과거와 미래를 떠돌며 잊고 싶어 한다.

선생님께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것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근원적 이유를 학생들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어떤 경우 ‘그것들’이 나타났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내 삶에서도 ‘그것들’이 나타났으면 할 때가 있는지, 그러면 나는 어느 지점으로 시간을 이동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더 확장하면 소외된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의 행동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3. 연두에게 ‘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연두에게 ‘문’은 연두의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 숨었던 화장실의 문은 연두에게 안식의 공간이었을 것이면서, 걸리지 않기 위해 닫을 수 밖에 없었던 연두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 화장실의 문 역시 ‘나쁜 사람들이 많은’ 남한에서 정착하기 두려워하는 연두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연두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약속한 ‘일곱 번의 노크’가 필요했다.

선생님께 ‘문’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고, 연두에게 ‘문’은 무엇을 상징하기에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지 생각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흔히 ‘문’을 ‘마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파생되어 용기, 두려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하지요. 연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연두는 문을 부여잡는지, 문밖의 세계를 왜 두려워하는지 이야기해 보고, 그 해결책인 ‘일곱 번의 노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 주세요. 학생들 자신의 삶을 두고 이야기를 확장해서도 됩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그것을 극복한 사례를 ‘문’과 ‘일곱 번의 노크’로 연관짓도록 이끌어 주세요.

4. 다음 두 글을 읽고, 우리 주변에 연두와 같은 친구를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생각을 적어 봅시다.

초·중·고에 다닐 나이인데도 학교에 다니지 않는 탈북 청소년들이 많다. 초등학교 취학률은 85.7%지만, 중학교 취학률은 49%다. 또 고등학교를 다닐 나이인 16살부터 20살까지 탈북 청소년 411명 가운데 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27명으로 6.6%에 불과하다.

중·고등학교 취학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학교를 다니다 그만두는 중도 탈락률이 높기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보면, 중학생은 남한 학생 평균의 8~15배, 고교는 인문계 8~13배, 실업계 3~4배 정도다.

김미숙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탈북 청소년들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 때(29.6%) △친구들이 무시하거나 놀릴 때(26.8%) 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답했다.”며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성적이고 그 다음은 말씨”라며 “탈북 청소년들은 북한 말투 때문에 부모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탈북 뒤 한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재입북한 탈북자가 1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탈북자 출신인 안**은 인터뷰에서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1명 정도가 재입북한 것으로 집계되지만, 이는 북한이 기자회견장에 내세운 경우만 11명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그는 월북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한국에 와서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는 못 내린다”며 부적응과 향수병을 꼽았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친구를 사귀는 20대, 자녀를 한국에서 공부시키는 40~50대와 달리 ‘중간’에서 이도 저도 안 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결혼도 안 되고 애인도 못 사귀는 사람들은 마음을 두지 못하니까 오히려 고향에서 시시덕거리며 살던 게 즐거워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소장은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전체주의 문화로 돌아가지 않나(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그는 월북을 실행하지 못한 채 끙끙 앓고 있는 탈북자도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출처: 중앙일보)

1. 「실험도시 17」처럼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실험도시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원하겠습니까? 다음 글을 읽고 지원하는 이유 또는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써 보고, 짝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실험도시 17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이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실험도시 17에 들어가면 열일곱 살의 외모로 늙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다는군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되지 않는다니, 좋은 기회네요!

단, 실험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가족들과는 만날 수도 연락을 할 수도 없대요. 대신 실험도시 안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게 되지요. 영원한 젊음을 갖는 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자칫하면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는데……. 31여러분, 모집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어서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97쪽)

실험도시 17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로불사라는 환상을 심는 일은 이것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노화를 치료해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소중한 것이고요. 가장 인간다운 것은, 자연스럽게 늙어 가는 것입니다. (93쪽)

나는 실험도시 17에 지원(하겠습니다. 또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났는데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통제하는 정부의 모습이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중대한 부작용을 알게 된 이후에도 학생들이 실험도시 17에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희망일까요? 아니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까요? 다음 논제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이유와 근거를 작성하여 봅시다.

논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찬성측 논증	반대측 반론	반대측 반론에 대한 찬성 측의 재반론
첫째	이유			
	근거			
둘째	이유			
	근거			
셋째	이유			
	근거			

선생님께 과학기술의 발전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찬성측과 반대측을 입장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신이 살고 싶은 이상사회를 선택해서 살 수 있다면 어떠한 모습일지 상상하는 글을 작성하여 봅시다. 단, 아래 글과 관련하여 생명 윤리를 고려한 이상 사회의 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는 글을 써 봅시다.

생명 현상은 탄생과 성장, 노화, 사멸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으로 구성된다. 생명 과학의 연구 주제는 인공 수정을 통한 출생에서부터 유전자 치료, 장기 이식, 노화 방지, 생명 복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각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윤리적 쟁점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학술적 논쟁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수많은 관점이 교차하는 복잡한 논쟁이 되기도 한다.(중략)

의학을 포함한 생명 과학이 생명과 관련된 인류의 필요와 가능성을 다루는 분야라면, 실천 윤리의 한 분과로서 생명 윤리는 생명 관련 연구를 포함한 행위의 선악을 다룬다. 생명 윤리는 생명 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함께 연구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위협하는 연구를 구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 주제의 범위 자체를 제한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학문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당한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크므로 치열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선생님께 생명 과학 기술의 발전과 생명 윤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생명 과학 기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